

충남 경제동향 한눈에... 월간 「충남경제」 창간

| 2010.1 | 충청남도 경제산업국장은 “올해 도정의 최우선 과제가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인 만큼 지난해의 우수한 경제성장세를 몰아 더욱 견고하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하면서 “이번에 창간된 ‘충남경제’를 통해 지역경제의 올바른 방향을 모색하고, 기업인과 도민 및 공직자들의 경제 지침서로 활용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충남/경/제



충남의 경제 현안과 주요 경제 동향이 담긴 월간지가 창간돼 기업인과 경제전문가 그리고 관련기관·단체로부터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충청남도과 충남경제교육센터(충남발전연구원 부설)는 지역경제의 길잡이 역할을 담당할 월간 “충남경제”를 1월 15일 공동 창간하고 충남의 주요 경제정책, 국내외 및 지역경제 동향과 지표를 한눈에 제공키로 했다.

이번에 발간되는 경제동향지에는 타 발행지와 달리 국내 및 충남의 주요 경제현안에 대한 분석보고서가 함께 수록되어 있어 최근의 이슈와 지역경제에 대한 이해를 한층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창간호에는 ‘2010 충남 산업경제정책 방향과 과제’ 및 ‘2010 경제전망’, ‘GRDP로 보는 충남경제’ 등을 주요 경제현안으로 다루고 있으며, 충남의 경제동향과 지표 등을 수록했다. 특히 충남도의 경제산업정책을 함께 소개하는 ‘충남경제일지’를 수록해 지역내 각 경제주체들에게 생생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권희태 충남도 경제산업국장은 “올해 도정의 최우선 과제가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인 만큼 지난해의 우수한 경제성장세를 몰아 더욱 견고하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하면서 “이번에 창간된 ‘충남경제’를 통해 지역경제의 올바른 방향을 모색하고, 기업인과 도민 및 공직자들의 경제 지침서로 활용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월간 “충남경제”는 500부씩 무료로 제작·배포되고, 충청남도과 충남발전연구원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서비스되며, 매월 15일 발간된다.

충남발전연구, 유네스코와의 국제교류협력 방안 특강 가져

- 유네스코(UNESCO) 한국위원회 정우탁 정책사업본부장 초청



최근 충남도가 '공주·부여 역사유적도시'를 세계유산 잠정도시로 확정짓는 등 경제·통상 분야 이외 충남의 문화유산을 전 세계에 알리는데 사업을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다.

이에 충남발전연구원(원장 김용웅, CDI)은 2월 8일 오전 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충발연 전 직원, 충남도 국제협력 담당자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네스코(UNESCO) 한국위원회 정우탁 정책사업본부장을 초청하여 '충남도와 유네스코 간 국제교류협력 방안'이란 주제로 특강 교육을 가졌다.

요즘 들어 언론을 통해 국내에 친숙하게 알려진 용어 중의 하나가 '세계문화유산 등재'라는 것인데, 바로 유네스코는 이러한 국제적 교육·과학·문화의 보급 및 교류를 통해 국가 간 협력 관계를 촉진함으로써 국제평화와 안보를 확보하려는 국제연합기구다.

특강에 나선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정우탁 정책사업본부장은 “국가 간 국제교류는 매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데, 최근에는 외자유치 등 경제적·산업적 교류 및 투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교육과 과학, 그리고 문화협력”이라고 언급하면서, “충남에서도 훌륭한 역사문화자원과 수려한 자연경관 등을 활용하여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생물권보존지역 지정, 그리고 더 나아가 유네스코 국제회의 유치 등 국제적 정보네트워크를 생성함으로써 충남의 브랜드를 홍보하고 이미지를 제고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강에 참석한 충남연 김용웅 원장을 비롯한 충남도 관계자는 “충청남도도 최근 다양한 국제교류 소재의 발굴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던 터”라고 언급하면서 “유네스코를 통한 양자간 국제교류협력을 뛰어넘어 다양한 형태의 다자간 교류협력사업은 물론, 유네스코와의 공동협력사업 발굴도 충분히 가능하리라 생각하며, 국제교류 시야의 폭을 보다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며 소감을 밝혔다.

충남발전연구원, 정동기 사무처장 취임



정동기(57·전 충남도의회 사무처장, 사진)씨가 2월 8일(월) 충남 발전연구원 제7대 사무처장으로 취임했다.

정 사무처장은 “30여년간의 공직 생활을 바탕으로 연구원의 효율적 운영과 연구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충남발전 김용웅 원장은 “정 사무처장의 탁월한 식견과 경륜으로 연구의 질 제고에 기여함은 물론, 평소 덕망있는 인품과 온화한 리더십으로 직원화합을 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사무처장은 충남 공주 출신으로 1981년 중앙공무원교육원 행정사무관으로 첫 공직 생활을 시작하여, 청양·예산군수, 아산시·논산시 부시장, 도 자치행정국장·문화관광국장, 도의회 사무처장 등을 역임했다.

충남도, 지방도시재생 활성화 대응전략 머리 맞대



충남도는 최근 도내 지방도시의 쇠퇴상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도시개발 및 정책의 패러다임이 도시재생으로 변화함에 따라 도시재생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도시쇠퇴상태의 체계적 분석 및 대응전략 마련을 위해 한 자리에 모였다.

충남발전연구원(원장 김용웅, CDI)과 함께 2월 9일 오전 충발연 대회의실에서 도시재생사업단 관계자, 충남도 및 16개 시·군 담당공무원, 그리고 충발연 도시재생 연구진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를 가진 것이다.

주제발표자로 나선 도시재생사업단 주관수 박사는 “도시재생 연계사업은 중앙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지역발전 사업 중 기성시까지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들로, 이는 현행사업을 활용한 실현 가능성이 높고, 지역중심의 사업추진동력을 확보함은 물론 중앙정부의 일괄지원이 가능해져 종합적 관점의 사업계획이 가능하다.”고 정의하면서 “개별사업의 통합화

에 따른 시너지 효과 창출, 일괄심의를 통한 업무효율 증대, 지역민 등 다양한 주체의 참여로 지역 역량의 지속적 강화 등으로 한국형 도시재생이 구현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충남발전연구원 김정연 도시재생연구센터장은 "도시재생정책의 법 제정 및 사업의 구체화 등 아직까지 체계화되지 못한 사항들이 많지만 충남에서 이런 학습·토론하는 장이 마련된 것 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고 전제하면서 "이미 센터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충남의 내륙도시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도시쇠퇴가 예상되는 만큼 도 및 시군, 연구진, 그리고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도시재생포럼' 및 '도시재생컨설팅단'을 구성하여 도시별 재생과제 해결과 재생기법 마련에 효율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에 충남도 유영일 도시기반담당관은 "올해 개정되는 도시재생 관련법과 관련하여 도 및 시·군 의견 수렴 및 정책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충남발전연구원과 공동으로 '지자체 지원반'을 운영하여 정부의 제도개선과제를 도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충발연 전통시장연구회, 상권활성화구역제도 적극 대응해야



지난 12월 30일 개정된 전통시장 관련법에 따라 새롭게 도입되는 '상권활성화구역' 제도에 대한 학습·토론의 장이 열렸다.

충남발전연구원 전통시장연구회(회장 권영현 연구위원)는 2월 9일 오후 3시부터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변화와 충남의 대응 전략 워크숍"을 연구원 대회의실에서 갖고, 환경변화에 대응한 전통시장의 활성화와 주체별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

시장경영진흥원 김영기 박사는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변화와 충남의 대응방안'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지금까지의 전통시장 정비방식은 하나의 시장을 대상으로 한 물적 정비 방식이었지

만 이번에 ‘상권활성화구역’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전통시장과 상점가는 물론 주변지역을 함께 광역적으로 정비할 수 있다.”고 분석하면서, “이 제도는 이미 선진국에서 많이 시행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도입하는 제도인 만큼, 각 지자체에서는 시민·상인들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와 지자체 내 부서간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충남발전연구원 임준홍 책임연구원은 ‘충남 전통시장 실태와 생존을 위한 제언’을 통해 “‘상권활성화구역’ 제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상업을 단순한 소매활동으로 보지 말고, 대형마트, SSM과 상생발전하는 ‘상업환경만들기’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면서 “일본의 후쿠시마현, 니혼마츠시 등에서는 대형마트의 입지조정 등을 포함한 상업마치츠클리를 강조되면서 상업시설의 적절한 입지유도에 의한 마을만들기를 추진하고 있다.”는 벤치마킹 사례를 역설했다.

한편, 오늘 워크숍에는 한남대 이덕훈 교수, 충남도 박여종 경제정책과 생활경제담당, 그리고 충남발전 전통시장연구회원 10여명이 참석하여 열띤 토론시간도 가졌다.

Tip. 상권활성화구역 : 시장 또는 상점가가 하나 이상 포함된 곳이나 도·소매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형성하는 구역 중 상업활동이 위축되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는 구역

충남발전연구, 2009년도 연구성과 연찬회 개최

- 연구결과물의 정책활용도 높이기 위해 노력할 터



충남발전연구원(원장 김용웅, CDI)은 3월 2일 오전 10시부터 연구원 대회의실에서 학계, 언론계, 관계 공무원, 그리고 연구진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9년도 연구성과 연찬회’를 가졌다.

이번 연찬회는 충발연구이 지난해 연구했던 21개 기본과제 중 내·외부 전문가 심사를 거쳐 우수연구로 선정된 6개 과제 발표와 함께 한남대 김태명 교수의 진행으로 연구성과물의 정책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의견 등이 논의되었다.

이날 발표된 우수연구과제는 ▲최우수상 - “저탄소에너지절약형 도시계획의 정책과제 및 추진전략(오용준 책임연구원), ▲우수상 - 충청남도 농촌개발사업 추진체계의 분제점과 개선 방안(조영재 책임연구원), 역사문화도시 이미지 형성에 관한 연구(박철희 연구위원), ▲장려상

- 당진-대전, 서천-공주 고속도로 주변지역의 여건변화와 발전전략(김정연 선임연구위원), 금강살리기 사업의 갈등유형 분석 및 관리방안(최병화 연구위원), 행정구역 단위 CO₂ 배출량 추정을 위한 기초연구(이인희 책임연구위원) 등이다.

충발연 김용웅 원장은 “많은 연구결과물의 생산에 비해 그 활용과 가치를 높이는 데 부족함을 느낀다.”며 “오늘 발표된 6편의 과제를 포함한 주요 연구결과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정책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충남발전연구원은 총 40명 중 27명의 연구직으로 기본·기획과제, 현안과제, 수탁과제 등 총 213건의 연구실적(디자인부문 77건 및 연구조성사업 53건 제외)으로 전국시도연구원 중 최고인 1인당 7.9건의 연구과제를 수행했으며, 2010년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계획, 2단계 충남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수립 등 국가공모사업에 대한 계획수립부터 교육에 걸친 코칭과 컨설팅으로 총 1,066억 원의 국비 및 예산 확보를 위한 지원연구를 수행하였다.